



왼쪽부터 목포시 옥암동, 순천시 조곡동 일대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모습.



〈전남도 제공〉

늘어나는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인 도덕의식 높아져야

서구, 10월 품암생활체육공원에 광주 첫 지자체 운영 시설
남구·북구 2027년까지...나주·해남 예정 등 전남에도 11곳
배설물 방치·소음 등 민원 지속...의식 캠페인·교육 등 필요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난 데 발맞춰 반려인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 공간에 시설을 만들기 앞서 반려인들의 도덕 의식부터 높여야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와 갈등 조정 역할도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달 20일 품암생활체육공원 내 중앙근린공원 서빛마루 뒷편 언덕 부지(800~1000㎡)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고시했다. 빠르면 10월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지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수랑공원 일대에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8년으로 미뤄졌다.

광주시는 서구 외에도 2027년까지 북구·남구에 각각 1곳씩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은 개소당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투입해 1000㎡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중앙공원(서구)에 이어 우산·우치공원(북구), 월산공원(남구) 등 총 3개 구역이 용역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전남에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전남에는 여수·순천·광양·무안·완도·목포 등 총 11개소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됐다.

순천시는 지난 2023년 103억원을 들여 철도공원 인근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했으며, 1800㎡ 규모의 실외 놀이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의 이용객은 2023년 6100명에서 지난해 1만 명으로 63% 증가했다.

해남군은 75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주시도 금천면 일원에 110억원을 투입해

공을 목표로 테마파크 조성을 준비 중이다. 반면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구의 문자민원 서비스 '문자하랑께'를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는 혐오시설인데 왜 장소부터 정하고 보느냐"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민원인은 "반려동물을 이따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배설물 문제나 냄새, 짖음 등 생활 불편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에도 무안군이 일로읍 오룡리에 5400㎡ 규모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설치 반대 목소리를 잇따라 내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우는 견주에 의해 개물림 사고가 날 수 있다", "인접 100여m 거리에 주거 시설이 들어서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2곳 들어설 예정이라 개물림 사고와 짖는 소리 등 소음, 분변, 냄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 주장을 폈다.

결국 보호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설물 방치나 목줄 미착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다수로, 반려인들이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설을 신규 조성 중인 서구는 "향후 공원조성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설계 용역사와의 회의를 통해 우려를 반영한 동선 분리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외적 요소인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동물 보호 교육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역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19년 4만4000여 마리에서 지난 2023년 7만9000마리로 1.78배 증가했으며,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전남도,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전국 1위' 광양만권 등 지난해 4만809t...전국의 20% 차지

전남도가 2년 연속으로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4만809 t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뿜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배출량(20만7724 t)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광양만권(광양·여수·순천) 71개 사업장이 전남 배출량의 99%(4만417 t)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남 전체 배출량의 66%에 달하는 2만 6919 t을 단독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는 6년 연속 전국 대형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포항제철소도 5년 연속 2위를 차지해 포스코 계열 제철소 두 곳이 최상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GS칼텍스(3509 t), 한화에너지 여수공장(1259 t) 등도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함께 지목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에도 4만 2852 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배출량 전국 1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환경 단체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업체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1일 오전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실행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단체는 "포스코는 지난 5년간 TMS 부착 지점을 42개소에서 175개소로 늘렸다고 하지만, 정작 실질적 배출량 감축은 미미하다"며 "그림자인 에스엔엔씨, 포스코퓨처엠, 필바리리튬솔루션 등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증가와 함께 오염 배출 역시 동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이제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 배출도로 낙인찍힌 상황"이라며 "포스코를 포함한 광양만권 기업들은 즉각 배출 감축에 나서고, 정부는 총량제 강화와 배출허용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갑질 징계' 간부 7개월만에 복귀 강력 반발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조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이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징계 권고를 받았던 간부 공무원들을 7개월 만에 원직에 복귀시키자 공무원노조가 "반인권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일 오전 광주시 남구청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청장이 이날 단행한 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구청장의 안이한 갑질 인식과 바주기식 인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징계가 아닌 영전성 인사를 내린 것은 갑질에 변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당시 특정 부서 과장이었던 A씨가 동료 직원 등 4명에게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A씨는 수개월 동안 특정 직원을 '탐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모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구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A씨를 지난해 12월 등으로 전보 조치했고,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개월간의 심의 끝에 A씨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갑질로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남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재심 결과 "징계 또는 주의 요구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광주시 징계위는 A씨에 대해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남구는 이날 하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A씨를 기존 부서 과장직에 복귀시켰고, 피해를 호소했던 직원 중 한 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북구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첫 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 최초로 북구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가 들어섰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3일 오전 9시 50분 광주시 북구 양산동 광주북구가족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전쟁 전·후 광주 북구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 및 위령제를 연다.

위령제는 광주전남추모연대, 장재성기념사업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광주시 유족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반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한국전쟁 직후 일어난 학살 등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북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전쟁 당시 집단 희생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동림동 불공고개, 양산동 장고봉고개, 장등동 도동고개 등 3개소에 위령비를 설치했다.

이들 위령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5~22일 광주에서 재판 절차조차 밟지 않고 학살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와 설치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광주 지역에서는 4000여명이 학살당했으며, 이 중 광주시 북구 지역에서는 운암산 기슭, 장고봉, 도동고개 3곳에서 23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